

# 2016. 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6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6.2.23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박희원, 김형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7	-	2	14		14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4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1월
교양	토크 교양프로그램 참교육자 모습 부각 바람직해	토크 교양프로그램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출연자 섭외	1월
교양	건강 프로그램 전문의 의학용어 가능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자막 등을 활용해 전문적 의학용어 알기쉽도록 전달	1월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선거관련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시사 프로그램에서 선거관련 소재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	1월
보도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선거방송을	선거방송 기획특집으로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	1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시청자와 공감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토크 프로그램 시청자들 눈높이와 맞추어 공감할 수 있게 제작	1월
교양	아침 생활정보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코너 필요	청년들을 위한 코너 선보이고 있어	1월
보도	선거 관련 기획취재물 다양하게	선거 보도물 기획취재물 방송	1월
보도	선거방송 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1월
교양	코이카 박람회 같은 프로젝트에서 청년들 일자리 지속적 관심을	박람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 일자리 지속적 방송	1월
교양	피동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것 방송에서 거르길	지속적 교육을 통해 어법에 맞는 언어 표현 하고 있어	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이번 시사광장(2월 21일) 「자유학기제, 입시 위주 교육 바꾸나?」 편에서는 2016부터 새롭게 중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될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사회자와 세종시 교육청,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논산 연무중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4명이 토론자로 출연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p> <p>본 방송은 영상자료와 참석자들의 발언 및 토론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취지, 운영 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사회자의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의 필요성과 올바른 자유학기제 도입 방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p> <p>다만 토론자가 언급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미국, 유럽 등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교육 선진국의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녀의 지도방식을 제안해 주었다면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p>추후 자유학기제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완할 점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점, 선진국의 모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추가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이번 전국이 보인다(2월 14일) 「거제펭귄수영축제 / 청소년희망원정대 등」 편에서는 추운겨울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겨울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이는 시기적절한 주제 선정이라고 판단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p> <p>먼저 본 방송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의 인터뷰는 보는 이들에게까지 즐거움이 느껴지는 소재로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국 지역에 유명한 명소와 먹을거리, 그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장인들의 이야기까지 이러한 소통을</p>	<p>&lt;전국이 보인다&gt;는 전국 각 지역의 명소와 명인, 화제의 현장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p> <p>앞으로 보다 시청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방송하도록 하겠다.</p>	○		

	<p>통한 정보공유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p> <p>또한 여러 명의 리포터들의 출연과 적절한 진행을 보여주는 진행자의 역할 또한 보는 이들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어 시청자들의 부담을 줄여줬을 것이다. 다만 한 번의 방송에 여러 가지를 소개하다보니 자세한 내용을 담기엔 시간이 부족해보여 아쉬움으로 남았다. 양보다 질을 높인다면 더욱 성장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오덕성).</p>			
<p><b>보도</b></p>	<p>시사광장(2월 28일)에서 ‘위기의 대덕특구, 활성화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대덕특구의 위기상황으로 정부에서 대덕특구외로 전북 영·호남 분원 설치, 대기업과 정부의 글로벌 첨단산업시장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 성남시·판교지구·서울 상암동에 첨단 과학연구단지 조성 추진, 지역에 대기업이 없어 특구에서 양성한 우수한 산업인력 공급 환경 열악, 대덕특구내 IBS국책사업 정부지원 부진 등을 들었다. 맞는 지적이다.</p> <p>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안산동의 국방산업 클러스트 추진, 평촌동에 76만평 산업단지 조성, SK벤처창업 플랫폼 구축, 연구소 계약 직원을 강소기업 산업 핵심 인력으로 지원 등을 들고 있으나 출연인사 4명 모두가 대덕특구 운영의 문제점 지적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대덕특구의 자체적 문제점과 위기의식 절감하는 코멘트가 부족했다. 충청남도, 충북, 세종시와의 연계방안 제시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 수도권으로 뺏기고 있는 정치공학적 역량 부족한 것도 대덕특구의 위기도 지적이 되었어야 한다(한찬희).</p>	<p>대덕특구의 활성화는 대전의 최대 과제라고 할 만큼 중차대한 주제이다. 당연히 한 시간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모든 측면을 짚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덕특구 운영의 문제점,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방안, 정치적 역량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p>	<p>○</p>	
<p><b>기타</b></p>	<p>홈페이지가 잘 구성되어 대전MBC 관련 정보와 TV, 라디오 등 모든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게 정리되었다.</p> <p>VOD자료 내용 중 “TV 다시보기”와 “뉴스 다시보기”의 자료를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뜨게 된다. ‘뉴스기사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니 고정적으로 10건의 뉴스제목이 제공된다. 방송일자와 상관없이 가장 최근의 10건을 제공하고 있어 전체뉴스의 일부 제목만 보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날의 뉴스 제목이 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뉴스기사보기’에는 방송일자별로 방영된 뉴스 제목이 제공될 수 있으면 더욱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김명수).</p>	<p>홈페이지 리뉴얼 사항에 반영하겠다.</p> <p>뉴스 다시보기 VOD 시청시 최신기사가 노출되는 것을 해당 날짜의 뉴스제목이 노출되는 문제와 VOD 클릭시 별도의 창이 뜨는 것을 해당 페이지에서 돌 수 있도록 하여 뉴스기사보기의 글자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게끔 노력하겠다.</p>	<p>○</p>	

<p>기타</p>	<p>청년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로 대전MBC와 KOICA가 공동주관한 행사가 대전시 및 많은 유관기관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일 주요 행사내용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었고 뉴스에서도 다루었지만, 유익한 내용을 특집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재방송 또는 VOD에 수록하는 것을 제안한다(김명수).</p>	<p>현재 대전MBC 홈페이지에서 VOD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p>	<p>○</p>	
<p>보도</p>	<p>시사광장 (2/28) ‘위기의 대덕특구 활성화 방안은?’ 을 보고 의견을 제시한다. 대덕특구 관련 내용은 지역의 관심분야로서 대전시, 특구재단, 연구소, 대학 등 패널 구성도 적절히 되었다. 토론 전에 주제 관련 영상자료를 사전에 보여주어 시청자에게 어떤 내용을 토론할지 알려주는 형식도 이제는 자리 잡아 가는 듯하다. 최근 정부의 상암, 판교 등 수도권 중심의 발전방안에 대한 대덕특구의 위기론에 대한 대전시와 특구재단의 입장차 등 현황을 사회자가 적절하게 유도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인식을 외부에서는 인정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는 부족한 점 과학문화가 부족하고, 구심체/조정자 역할도 부재하고, 시와 특구재단에서 생태계/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당위적 과제 등은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미약했다. 시사 토론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번 토론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주제도 계속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토론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 패널 구성도 다양하고 균형감 있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김명수).</p>	<p>대덕특구로 인해 대전의 대내외적 정체성을 과학도시로 규정짓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대덕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토론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p>	<p>○</p>	
<p>보도</p>	<p>최근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재건축 관련, 소유주인 목원대에서 서울지역의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19층 오피스텔을 건축할 계획이다. 동 건물은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인 문화교류의 장소로서 상징성도 있는 바, 연구단지의 진입로 및 과학문화거리에 고층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은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과기관연단체 및 인근주민들이 ‘대덕과학문화센터 재창조추진위’를 구성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대전시 및 유성구청에서는 연구단지 종사자의 의견반영 절차 없이 건축심의를 하였고, 최근 건</p>	<p>대덕과학문화센터 재건축 관련해 지역 과학계의 입장과 인근 지역민들의 의견 등이 대변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적극 검토하겠다.</p>	<p>○</p>	

	<p>축허가도 내줌으로써 오피스텔 건축계획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실정이다. 대전MBC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하는 것을 건의 드린다(김명수).</p>			
<p>교양</p>	<p>지난 2월 20일과 21일에 열렸던 ‘대전MBC 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코이카 박람회’는 대전·충청지역 주민들에게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제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이런 저런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청년들이 중심돼 해외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 코이카 정도로 알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행사가 코이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지역인재와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나눔을 제공한 의미 있는 장이 됐다고 여겨진다.</p> <p>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코이카 박람회’여서 기대반·우려반의 시선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 개막식이 열렸던 현장의 열띤 분위기와 박람회의 각종 프로그램들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행사의 성공을 알 수 있었다.</p> <p>행사를 앞두고 방송매체를 통해 전해진 사전 알림들이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스며들었다고 본다.</p> <p>코이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기관인지, 또 박람회 개막식과 이어진 현장의 각종 상담·홍보 부스들의 소개 등이 TV화면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자에게 전해지면서 이번 행사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지역방송이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과 뉴스, 그리고 지역민을 겨냥한 쇼와 행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p> <p>프로그램과 뉴스의 시청률을 올리고 행사들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들이 뒤따라야 함께 하는 것들도 그렇다. 이 시대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들은 보다 새로운 것들을 요구한다. 지역 방송의 틀을 깨고 타 방송이 시도하지 않는 보다 글로벌 한 것들을 접해보고 싶어 한다.</p> <p>이번 ‘대전MBC 청년 해외 일자리찾기 프로젝트 코이카 박람회’는 대전MBC 구성원들 땀의 결정체이다.</p> <p>그리고 ‘Good Morning KOIKA’ 해외특집 -</p>	<p>&lt;2016 코이카 박람회&gt;는 청년실업을 해외 진출을 통해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와 방송이었다.</p> <p>행사를 통해 해외취업의 문을 살펴보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도 정보를 얻어갔었을 것이라고 본다.</p> <p>각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런 행사가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행사였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p> <p>행사가 행사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줌으로써 한층 의미를 되새기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p> <p>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p>	○	

	<p>베트남 현지 취재도 이런 면에서 더 눈길을 끈다(김학선).</p>			
<p>교양</p>	<p>&lt;과소비가 확산돼 간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경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gt; 어떤 말을 인용할 때 ‘어떠어떠하다라는’ 말을 무분별 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 ~ 라는’ 이나 ‘ ~라고’ 등은 직접 인용할 경우에만 사용되는 일종의 인용 어미 이다. 예를 들어서 ‘어제 “ 시작이 반이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 미국 대통령이 “마약은 반드시 추방해야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처럼 남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빌려 쓰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어미가 간접 인용의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쓰이면서 이제는 전형적인 말투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와 같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문장에서도 기사를 직접 인용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용했고 ,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 어떠한어떠하다라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 과소비가 확산돼 간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 걱정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로 고쳐 말해야 맞는 표현이다(김학선).</p>	<p>방송용어의 정확한 사용은 아나운서 파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현직 아나운서는 물론, 방송에 임하는 프리랜서 진행자까지 바른말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 정화하여, 바른말사용에 있어 모범이 되는 방송을 제작하겠다.</p>	<p>○</p>	
<p>보도</p>	<p>1월 31일 방영된 시사광장에서는 ‘학대 받는 아이들, 어떻게 보호하나?’ 를 주제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대처 방안과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우선 최근 들어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시기적절할때 시사광장에서 다루었다고 본다. 이날 시사광장에서는 장기결석학생 관리 실태를 듣고 아동학대 유형과 원인을 살펴보고, 외국에서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p>	<p>언론의 역할은 사회 현상을 보여 주는 창에 그치기보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입장을 가질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형성된 여론을 전달하는 일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은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감히 생각한다.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역 언론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p>	<p>○</p>	

	<p>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7일 이상 장기결석자 등은 총 287명으로 파악되었다.</p> <p>하지만 시사광장에서는 현재 장기결석자는 무단 장기결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 신청에 의한 '정원외 관리' 학생 안전에 대한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과 학대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전문위탁, 그룹홈 등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인력으로는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잘 말 해 주었다.</p> <p>또한 교사, 부모, 기타 관계 서비스담당자들이 아동의 대변인과 옹호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강력한 법적 조항과 법이 실현될 수 있는 국가의 의지가 있었어야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덕대 이무영 교수의 주장은 이날 시사광장의 주제의 답이 돼 주었다고 보며, 시청자로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본다(장백기).</p>			
<p>교양</p>	<p>시사플러스(2월 25일) [만학도 울리는 교장의 수상한 감질] 편을 시청하였다.</p> <p>만학도. 만학도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움의 때를 놓친 사람들의 소중한 꿈의 도전이자 아름다운 추억의 실현으로 생각들을 한다.</p> <p>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꿈의 도전이자 아름다운 추억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할 기관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자기성장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교장에 대해 시사플러스에서 다루었다.</p> <p>이날 시사플러스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해당 교장의 발표와 학교구성원들의 이사진 전원 교체 요구 사항을 전해주고, 대전시교육청의 주요 감사 결과도 전해 주었다.</p> <p>또한 감사결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관련법상 권한이 없어 전원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시사플러스에서는 현재 이사진 대부분이 이사장과 관계가 얽혀 있어 이대로라면 여전히 이사장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학교정상화를 위해 재단 이사진 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학교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었다.</p>	<p>&lt;시사플러스&gt;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대안마련까지 고민하는 지역시사 프로그램이다.</p> <p>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한 이번 편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학교에서의 변칙적인 비용사용과 이로 인한 주변의 피해에 대한 고발과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p> <p>앞으로도 지역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p>	○	

	<p>또한 고등학교 과정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밖에 없는 현실도 전하며, 공적기관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의 필요성도 잘 전달해주었다고 본다.</p> <p>요즘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나, 늦은 나이에 더 많은 배움의 꿈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생교육기관을 많이 찾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중한 꿈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뉴스보도를 통해서라도 향후에라도 사후 진행 결과에 대해 다시금 전해 주었음 한다(장백기).</p>				
교양	<p>코이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전에서 청년 해외일자리 찾기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코이카 박람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꼭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중소기업이나 저명인의 강의 인기가수의 노래까지 지루할 틈이 없이 행사가 진행된 느낌이었다. 다만 시작하자마자 먼저 인기 가수의 무대가 진행되었는데 중간 정도에 넣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수도 후반부에는 보이그룹이 나왔는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다.</p> <p>아쉬운 점은 코이카의 특수한 지위가 청년 창업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나 시스템적 접근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코이카에 취업한다던가 코이카를 통해 현지에 취업한다던가 코이카와 관련되어 있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던가 하는 경로들이 명확히 제시되었더라면 더 쉽게 이해했을 것 같다(성정모).</p>	<p>지적인 내용들은 향후 동일, 유사한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참조하여 더욱 내실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p>		○	
교양	<p>굿모닝 코이카(2월 25일)는 코이카 박람회에 더불어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코이카 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p> <p>빗물을 이용한 식수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무상 원조에 대한 소개가 인상 깊었다. 다만 보다 원론적인 부분의 소개 즉, 원조액이나 베트남 사무실의 규모 정도는 소개되었지만 원조액이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어떻게 원조 대상을 선별하는지, 코이카 사무실에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등이 보다 자세히 소개되었다면 코이카에서 근무하고 싶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p> <p>아울러, 한국이 앞서 산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과정이 소개된 것</p>	<p>방송된 굿모닝 코이카 - 베트남편은 코이카 단원들의 활약상을 베트남 현지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 프로그램이다.</p> <p>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가장 빠르게 변모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현장에서 봉사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렸다고 자부한다.</p>		○	

	<p>도 좋지만 결국 이러한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생생한 경험을 갖춘 장년층이나 은퇴자들이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p> <p>또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해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직층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성정모).</p>				
<p><b>교양</b></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새로운 코너가 신설되었다. '아침N 퀴즈'가 그것인데 새로운 퀴즈형식으로 시청자층을 유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p> <p>5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전체 방송시간 분량 중에 퀴즈 코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못 크다. 다른 코너를 압도하는 듯하다. 시간 안배를 다시 한번 고민해주길 바란다(유덕순).</p>	<p>현재 퀴즈의 진행시간은 10분으로 타 코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다소 길게 느껴지거나 지루한 부분은 정리하여 보다 경쾌하고 발 빠른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p>	○		